

2013. 6. 26.



담당부서 : 사법정책실

담당자 : 박찬익 심의관

연락처 : ☎ 3480-1254

2013. 6. 26.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제14회 입법정책포럼에서 강연

- 변화의 시대에 사법부는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013. 6. 26.(수)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14회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변화의 시대, 사법의 역할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강연 주요 내용

### ▶ 변화의 시대, 사법의 역할

- 법원은, ‘법의 지배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이라는 법치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
- 변화의 시대에도 법원은 법의 지배 원칙을 구현하고 사회통합의 열쇠가 되어야 함

### ▶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 국제적으로 효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여도 현재 사법제도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소통의 진정한 목적인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에서의 소통이 가장 중요. 소통의 시작과 끝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진정한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 주의 실현, 품위 있고 따뜻한 법정 언행 사용 필요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추진은 외부 개방형 논의기구 설치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임

▶ 입법과 사법의 상호작용

- 법률의 개정이 판례의 변천을 이끄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피의자신문 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정리하고 요건의 제시 등 법원의 판단이 입법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거나 법률의 정비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음

▶ 미래 사법을 위한 입법정책

○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 국민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대법원은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함
- 하급심 판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심급간의 기능 분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법원이 판례통일, 법령 해석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민의 사법복지 증진·사회갈등 해결 위한 사법 체계 수립

-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제고되고 법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사법**,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문제해결법원(problem solving court)**의 역할이 중시는 **치료사법(therapeutic justice)** 도입을 뒷받침할 만한 **법제적 검토 필요**

◆ 마무리 말씀

- 미국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
- 사법부는 **변화하는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 법의 정신을 해석하고 발견해 나가야 함**

◆ 입법정책포럼

- 지난해 3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족한 포럼으로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여 음. 입법정책포럼은 입법부, 행정부, 법조계 및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월 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듣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